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light gray color with a repeating pattern of traditional Mongolian motifs. These motifs include stylized flowers, geometric shapes, and circular designs, all rendered in a light gray line-art style. The patterns are arranged in a grid-like fashion, with some larger, more complex designs interspersed with smaller, simpler ones. The overall aesthetic is clean and modern, while still honoring traditional Mongolian art.

몽골제국과 팩스 몽골리카

몽골제국과 팩스 몽골리카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1. 머리말

이 세상에서 몽골인들 만큼 영광과 좌절의 역사를 차례로 경험한 민족도 드물 것이다. 그들은 한 때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의 주인 노릇을 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에는 강대국에게 철저히 분할·지배되어 굴종의 세월을 보냈다. 불세출의 영웅 칭기스 칸(1162-1227)의 이미지와 TV 화면 속의 가난한 몽골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겪은 빛나는 역사와 어두운 시절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몽골 역사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같이 한 민족의 역사도 흥함과 성함이 교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칭기스 칸은 대체 무슨 수로 가난한 유목민들을 이끌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제국을 건설했을까?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던 대제국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금처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렸을까? 이 질문은 필자가 몽골을 공부한 이후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이다. 분명 거칠고 단순한 물음이지만, 이는 몽골사의 두 부분, 즉 지난 800년 동안 몽골인들이 걸어온 영광과 가시밭길을 암시한다.

몽골 땅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70만 년 전(?)이다. 몽골에는 이들 선사인과 그들 후손들이 남긴 수많은 유적이 남아 있다. 과장하면 몽골은 국토 전체가 문화유산이라도 해도 좋을 정도로 유적과 유물이 풍부하다. 이 땅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흉노(匈奴, 기원전 3세기에 건설된 최초의 유목국가)라 불리는 집단이다. 그 뒤 선비(鮮卑, 기원 2-4세기), 유연(柔然, 4-6세기), 돌궐(突厥, 6-8세기), 회궐(回鶻=위구르, 8-9세기), 거란(10-12세기) 등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았음직한 북방민들이 번갈아 가면서 몽골 땅에 나라를 세우고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이 사람들은 물론 몽골족은 아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몽골족은 원래 중국 동북방에 있는 헤이룽 강(黑龍江) 상류 지역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9-12세기에 걸쳐 지금의 몽골초원으로 이주하고 13세기 초기부터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 후 몽골 고원의 주인은 몽골족으로 고정되고 외부인들 역시 그 땅을 몽골,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일괄하여 몽골족이라 부르게 되었다.

몽골 땅의 주인이 된 몽골인들은 13-14세기에 걸쳐 그때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흔히 몽골제국이라 부르지만 이는 후대 학자들이 붙여준 속칭이다. 몽골인들은 그 나라를 ‘에케 몽골 울루스’(대몽골국)라 불렀다. 이를 한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말이 대

원(大元)인데 중국인들이 자기 식대로 원조(元朝)라고 이름 붙였다. 대몽골국은 제국의 크기만큼이나 세계사 전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일을 주도한 몽골인 자신과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중국, 러시아 등 주변 민족은 물론이고, 이를 숨죽이며 지켜보았던 서구인들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직감했다. 그런 이유로 몽골제국 출현 당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로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몽골인들이 이룩한 과업에 대하여 이리저리한 평가를 해왔고, 이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몽골제국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동서교류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볼 것이다.

2. 몽골족의 등장

칭기스 칸 시대에 몽골족은 자신들의 고향을 세 강의 근원이 있는 곳, 즉 삼하지원(三河之源)이라 불렀다. 이곳은 오농(오논) 강, 헤를렝(케를렌) 강, 툴(톨라) 강이 발원하는 곳으로서, 오늘날 몽골의 수도가 있는 울란바타르 동부의 헨티 산맥이 위치한다. 당시 몽골인들은 이 산지를 보르향 할동(보르칸 칼돈)이라 부르며 성산(聖山)으로 여겼고 칭기스 칸과 그의 일족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금구(大禁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몽골인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연유로 삼하지원으로 옮겨왔을까?

몽골제국의 하나인 일 칸국의 재상 라시드 앳딘(1250-1318)이 14세기 초기에 편찬한 『집사(集史)』(Jāmi' at-Tavârikh)라는 역사서에는 몽골족의 기원과 이주에 관한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오래전 몽골족은 인접한 투르크족과의 전쟁에서 거의 몰살되고 두 쌍의 남녀만이 살아남았는데, 이들은 도망쳐서 어느 협곡을 지나 넓은 초원이 있는 에르구네 쿤이라는 곳에 은신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철산(鐵山)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었던 그들은 70마리의 소와 말을 죽여 그 껍질로 70개의 커다란 풀무를 만들었다. 그리고 장작과 석탄을 쌓아서 철산 아래에 불을 붙인 뒤 일시에 풀무로 불어 쇠를 녹인 뒤 출구를 만들어 탈출해서 삼하지원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설화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허구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특히 에르구네 쿤에서 이주해 왔다는 부분은 다른 자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사실임이 확인된다. 당대(唐代) 중국 측 자료에 의하면 북만주 지방 아무르 강(즉 헤이룽 강) 유역에 실위(室韋)라는 이름을 가진 부족집단이 분포되어 있었고, 그중에 몽골실위(蒙兀室韋)가 있었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 몽골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몽골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사례이며, 그들의 위치가 아무르 강의 상류에 해당되는 아르군 강(즉 에르구네 강) 유역이었다는데 동의한다.

당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고 있을 무렵 북방초원의 패자는 돌궐과 위구르였다. 이들은 유목민 중에서 최초로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 즉 고대 돌궐문자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문자로 새겨진 현존하는 비문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몽골초원의 동북방에 타타르(Tatar)라는 이름의 집단과 치열한 전쟁을 계속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타타르는 한문 자료에 달단(達旦) 혹은 조복(阻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몽골어를 사용한 집단이었다. 『집사』에 보이는 몽골족 절멸설화도 당시 투르크계 유목민들과의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돌궐에 이어 몽골초원을 지배한 위구르제국은 자연재해와 내분 그리고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 9세기 중반 경 갑작스럽게 붕괴되었고 대다수 위구르인들이 남쪽의 중국변경과 서쪽의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이주했다. 그 결과 몽골초원에는 정치적 무질서뿐만 아니라 인구의 급격한 공백 상태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국의 동북변경을 압박하던 몽골계통의 여러 집단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남하했다. 몽골족의 이주시기를 9세기 중반으로까지 올려 잡는 학자들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하지원 유역에서 장제(葬制)의 변화를 추적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종래 투르크계통의 동두위굴장형(東頭位屈葬型, 잉고다-오농형)에서 몽골계통의 북두위신전형(北頭位伸展型, 아르군형)으로의 전환이 12세기 중후반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위구르

제국의 붕괴로 인해 정치적 장벽이 사라진 것이 9세기 중반인데, 이처럼 몽골계 집단의 이주가 지체된 것은 거란족이 건국한 요(遼)가 몽골초원 곳곳에 군성(軍城)을 구축하고 성벽을 쌓으면서 새로운 방벽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요는 1125년 여진의 금에 의해 무너졌고 이로써 몽골족의 대대적인 남하와 이주를 위한 역사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오농 강 유역에서의 장제변화를 분석한 이 연구가 몽골족의 이주시기에 대해서 우리의 지견을 넓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몽골족의 이주가 9세기 중반 위구르제국 붕괴 이후부터 시작되어 12세기 후반까지 계속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요를 건국한 아율아보기(耶律阿保機)가 924년 위구르제국의 수도가 있던 회골성(回鶻城, 현재 카라코룸 부근)까지 원정을 가서 “조복(阻卜)을 공격했다”는 『요사(遼史)』의 기록과 981년 북송을 출발한 사신 왕연덕(王延德)이 오르홍 강 유역에서 달단을 만났다는 기록은, 이미 10세기 전반부터 몽골계 집단이 몽골초원의 중부와 서부까지 진출해 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몽골족의 민족이동은 거대한 단일집단이 단기간에 이주하여 몽골초원 각지에 균일하게 분포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대소의 다양한 집단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주하면서 보다 좋은 조건을 갖춘 초원부터 채워나가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하지원에서의 장제변화가 말해주는 사실은 그곳에 몽골계 집단이 출연한 것이 초원의 다른 곳들보다 시기적으로 늦었고, 그곳의 주인이 된 좁은 의미의 몽골-당시 몽골이라는 이름은 삼하지원에 터를 잡은 집단만의 고유한 명칭이었음-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늦게 민족이동의 행렬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칭기스 칸은 바로 이 후발 집단에서 나왔고 그가 초원을 통일하면서 몽골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초원의 모든 부족들을 포함하는 민족의 명칭이 되었다.

3. 몽골군의 대외원정

1206년 칭기스 칸(1162-1227)은 몽골고원을 통일하고 예케 몽골 울루스(대몽골국)의 군주로 즉위했다. 칭기스 칸은 내부정비를 마치고 곧바로 대외원정에 착수했다. 1207년에는 큰아들 조치(주치)를 시켜 몽골북방의 삼림민(森林民)을 토벌하고, 1209년에는 탕구트족이 세운 고비 남부의 서하(西夏)를 공격했다. 이처럼 인근지역을 평정한 다음 그는 전군을 동원하여 1211년 봄 금나라 원정에 나섰다. 1215년 금의 수도 중도(中都)가 함락되고 칭기스 칸은 황하 이북의 땅을 지배하에 넣었다.

1218년 중앙아시아의 호레즘에 파견한 사절단이 시르다리아 강 중류의 오토라르에서 살해되고 상품이 몰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칭기스 칸은 이를 빌미로 1219년 가을 15만 대군을 이끌고 중앙아시아 원정에 나섰다. 그 해 말 오토라르에 도착한 몽골군은 군대를 4개로 나눠 공격을 시작했다. 칭기스 칸의 장남 초치가 지휘하는 우익(右翼)은 시르다리아 하류의 잔드를 공격하고, 좌익(左翼)은 강 상류의 호젠트로 진군했다. 둘째 차가타이(차가다이)와 셋째 오고타이(우구데이)는 오토라르를 공략하고, 칭기스 칸과 막내 툴로이(톨루이)는 중군(中軍)을 이끌고 키질쿰

사막을 횡단하여 부하라로 진군했다. 호레즘 군주 무함마드(재위 1200-1220)는 사마르칸트를 버리고 동부이란의 호라산(후라산)으로 도망갔다. 칭기스 칸은 제베와 수베테이로 하여금 그를 추격하게 했는데, 무함마드는 이란 각지를 떠돌다 그 해 12월 카스피 해의 작은 섬에서 병사했다. 몽골군 본대는 무함마드의 후계자 잘랄 앳딘(재위 1220-1231)을 쫓아 아무다리야 강을 건너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지만, 험난한 지형 때문에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철수했다. 정복지로 돌아온 몽골군은 1225년 봄 몽골초원으로 돌아왔다.

1226년 칭기스 칸은 다시 서하정벌에 나섰다. 명목은 호레즘 원정 때 협력을 거부한데 대한 응징이었다. 그는 서하 수도 흥경(興慶)의 함락을 눈앞에 두고 1227년 8월 링샤회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区) 리우반산(六盤山) 남쪽 칭수이하(清水河)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칭기스 칸이 사망하고 2년이 지난 1229년 셋째아들 오고타이(재위 1229-1241)가 카안, 즉 대칸¹⁾에 즉위했다. 그는 즉위 후 곧바로 금나라 원정에 착수하여 1232년 1월 금의 새로운 수도 카이펑(開封)을 함락시켰다. 오고타이는 이어 1235년 몽골고원 중앙부에 수도 카라코룸을 건설하고 행정기구를 정비한 다음, 다시 대규모 원정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동서 두 방면에서 원정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오고타이의 셋째아들 쿠추가 지휘하는 남송(南宋) 원정이었다. 그러나 이 원정은 개진 초기(1236년 3월) 쿠추가 급사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서방원정군의 총사령관에는 칭기스 칸의 장남인 조치의 둘째아들 바투가 임명되었다. 조치가문의 영지로 예정되어 있던 킵차크(킵착)초원(현재 카자흐 초원-남러시아 초원)을 평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1235년 몽골초원을 떠난 원정군은 이듬해 킵차크초원의 투르크계 유목민을 모두 흡수했다. 몽골군은 이어 불가강 중류의 불가르를 함락시키고, 이듬해 1237년에는 루시(러시아)의 제후국을 정복했다. 계속하여 몽골군은 불가강 하류에서 캅카스 방면으로 군대를 돌려 아스족(고대 알란족으로 현대의 오세트인)을 평정한 다음, 1240년에는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한 부대는 폴란드로 진격하여 1241년 4월 9일 레그니차(리그니츠)에서 폴란드와 독일의 연합기사단을 격파했다. 한편 바투 휘하의 본대는 헝가리로 진격하여 동년 4월 11일 모히 초원에서 헝가리군을 격파했다.

이 무렵(1242년 3월) 원정군 사령관 바투의 장막에 오고타이의 사망소식과 원정군의 귀환 명령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몽골군은 차례로 동방으로 돌아갔다. 이때 바투는 몽골로 가지 않고, 자기의 본영인 불가 강 하류로 돌아와 원정과정에서 얻은 광대한 영역을 자기의 영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역사적인 조치 울루스(킵차크 칸국)가 성립되었다.

오고타이가 사망하고 5년이 지난 1246년 그의 아들 구유크(구육, 재위 1246-1248)가 대칸에 즉위하지만, 그는 즉위한지 2년 만에 사망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251년 칭기스 칸의 막내 아들인 톨로이의 장남 몽케(재위 1251-1259)가 대칸에 즉위했다. 몽케는 동생 쿠빌라이에게 남송정벌 등 동방정략을 맡기고, 그 아래 동생 훌레구(재위 1256-1265)에게 이란 방면의 통치를

1) 칭기스 이후 대몽골국 준주는 칸 중의 칸을 뜻하는 카안을 칭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고타이가 그냥 카안을 칭했는데 그 후 군주들이 자신의 칭호에 카안을 붙였다. 쿠빌라이 카안이 대표적 사례다.

위임했다. 쿠빌라이는 오고타이 시대에 시작된 남송원정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면공격을 피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몽케는 쿠빌라이의 이러한 전략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출전했는데, 이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이 몽케의 군영을 급습하여 1259년 7월 30일 그는 쓰촨성(四川省) 조어산(釣魚山) 진중(陣中)에서 급사했다.

1260년 4월 쿠빌라이(원 세조, 재위 1260-1294)가 내몽골 상도(上都)에서 쿠릴타이(부족장 회의)를 개최하고 대칸에 즉위했다. 수도 카라코룸에 남아 있던 막내 아리크 부케(아릭 부케)도 그 해 5월 쿠릴타이를 개최하고 대칸에 즉위했다. 이렇게 제국에 두 명의 대칸이 존립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새로운 대칸 자리를 둘러싼 싸움은 군사력, 보급, 외교에서 열세에 있었던 아리크 부케의 투항(1264년 7월)으로 종결되었다. 실력으로 제위를 장악한 쿠빌라이는 수도를 몽골초원의 카라코룸에서 자기의 본거지인 상도로 옮기고, 1267년에는 현재의 베이징 땅에 제국의 새로운 수도 대도(大都)의 건설을 명했다. 그리고 그는 1271년에는 중국식 국호인 대원(大元)을 채택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카안 울루스이자 원조(元朝)이다.²⁾

한편 서방원정에 나선 홀레구는 1253년 가을 몽골을 출발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1258년 2월 바그다드를 점수했다. 이어 그는 1260년 시리아에 진출하여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킨 뒤 이집트로 진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때 대칸 몽케의 사망소식이 전해졌다. 홀레구는 선봉부대인 키트 부카에게 후사를 맡기고 남은 군단을 거느리고 귀환 길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타브리즈 부근에서 쿠빌라이의 즉위소식을 듣고, 귀환을 포기하고 이란과 이라크에 새로운 정권을 수립했다. 이렇게 하여 역사적인 홀레구 울루스(일 칸국)가 성립되었다.

중앙아시아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칭기스 칸이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한 후 통치를 위임받은 관리들의 노력으로 오아시스지대는 빠른 속도로 복구되었다. 이곳은 원래 칭기스 칸의 둘째아들 차가타이 가문의 영지로 되어 있었지만, 오고타이는 무슬림상인들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중앙아시아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 쿠빌라이가 동생 아리크 부케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중앙아시아를 관할하던 차가타이 가문의 알구(재위 1260-1266)가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아리크 부케는 보급물자를 주로 중앙아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쿠빌라이의 지지자인 알구가 사망하고, 그를 계승한 바라크(바락, 재위 1266-1271)가 오고타이 가문 및 조치 가문과 연대하여 쿠빌라이에게 반기를 들면서 중앙아시아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 틈을 이용하여 오고타이의 손자인 카이두(재위 1269-1301)가 중앙아시아의 지배권을 장악했다. 그는 차가타이 가문의 수령 바라크를 살해하고 그들의 속민과 아리크 부케의 아들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었다. 이처럼 카이두는 알타이산맥에서 마와란나흐르³⁾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쿠빌라이와 대치했다.

1294년 쿠빌라이가 죽은 후 테무르(원의 성종, 재위 1294-1307)가 카안 울루스(대원)의 대칸

2) 이 무렵 카안 울루스의 지배영역은 몽골초원, 여진의 영역이었던 북중국, 서하의 영토였던 하서 지방, 티베트 등이다.

3) 오늘날 중앙아시아 핵심부로서 아랄 해로 흘러드는 두 강, 즉 아무다리아 강과 사르다리타 강 사이를 말함.

에 즉위했다. 그 후 1300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몽골서부와 알타이 일대에서 카이두와 대원의 군대가 충돌했다. 수차의 회전 후 카이두가 패주하고 그때 입은 상처로 그는 사망했다. 이때 차가타이 가문의 수령 두아(재위 1284-1306)와 카이두의 아들 차파르가 테무르에게 복속했다. 이 화합은 훌레구 울루스와 조치 울루스로부터도 환영을 받아 1305년을 전후하여 40년 동안 계속된 중앙아시아 분쟁이 종식되었다. 두와는 대원의 군대와 협력하여 오고타이 가문의 전존세력을 하나씩 격파했다. 그 후 중앙아시아에는 두와를 중심으로 하는 차가타이 가문의 단독 지배권이 확립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차가타이 울루스(차가타이 칸국)다.

4. 동서세계의 통합과 문명의 교류

14세기 초기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에는 칭기스칸의 후손들이 건설한 카안 울루스(대원), 차가타이 울루스(차가타이 칸국), 조치 울루스(킵차크 칸국), 훌레구 울루스(일 칸국) 등 4개의 거대한 울루스가 탄생했다.⁴⁾ 몽골제국의 출현은 제국의 크기만큼 각 지역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유라시아 대륙은 그 때까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각 지역의 역사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나 이들이 몽골에 의하여 통합되면서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유라시아 전역의 역사가 긴밀하게 연동하여 움직이게 되었다.

첫째 몽골제국의 등장은 인간집단의 대대적인 이동을 촉진시켰다. 원정군에 동원된 몽골전사들은 원정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정복지의 유능한 인재와 장인들이 몽골 땅으로 끌려 왔다. 대원의 쿠빌라이는 킵차크초원 출신의 킵차크족, 아스족, 캅글리족 등 유목민을 이주시켜 자신에게 충성하는 친위군을 조직하고, 중국남부 윈난(雲南) 지역의 개발에 중앙아시아의 무슬림과 위구르인들을 참여시켰다. 인간의 집단적 이동은 주변지역으로도 파급되었다. 몽골군의 침략으로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아나톨리아반도로 이주하고 이를 계기로 11세기 이후 계속된 이 지역의 투르크화가 촉진되었다. 또한 몽골군의 침략을 받고 중앙아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지역 거주민들이 북인도로 이주하면서 이 지역의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몽골제국의 출현은 동서세계의 교역과 교류를 촉진시켰다. 제국 각지를 연결한 역참(驛站, Jamchi)이 정비되어 육상교통로가 완성되고, 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위구르상인과 무슬림상인 등이 대규모 상업 활동을 전개했다. 몽골제국을 축으로 하는 상업망은 훌레구 울루스와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제노바와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상인과 비잔틴상인이 참여하면서 지중해까지 확대되었다. 14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몽골제국이 이룩한 세계규모의 경제교류와 발전이 그 배경이 되었다.

4) 지금까지는 이들 4개의 울루스의 출현을 계기로 몽골제국이 분열되었다고 이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몽골제국사 연구자들은 이들 4개의 울루스는 종가(宗家)인 카안 울루스가 멸망할 때까지 통합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어 쿠빌라이 이후의 몽골제국을 일종의 연방제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분열보다는 연방제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교통로의 안정이 보장되면서 동과 서를 오가는 장거리 여행자들이 출현했다. 우선 서방 3왕가⁵⁾를 비롯한 제국 각지의 왕족과 지방군주의 사절단이 대원의 수도 대도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사실상 최고급 특산품과 진기한 물건을 휴대한 공식적인 통상사절단으로서 때로는 규모가 수백 명에 이르렀다. 종교인의 왕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국 도교교단의 장로 장춘진인(長春真人, 1148-1227)은 칭기스 칸의 부름을 받고 중앙아시아를 여행했으며,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景敎)의 사제 랍반 사우마(1220-1294)는 대도에서 홀레구 울루스로 순례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아르군 칸(재위 1284-1291)의 명으로 유럽 각지를 다녀왔다. 또한 프란체스코파 수도사 플라노 카르피니는 1245-1247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의 명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카라코룸을 다녀왔고, 같은 교단의 수도사 루브루크(루브룩)는 1253-1255년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사절로 역시 몽골을 방문했다. 15살 때 아버지를 따라 동방으로 갔던 마르코폴로(1254년경-1324년경)는 고향으로 돌아와 『동방견문록』이라는 불후의 명저를 집필했고, 모로코 태생의 이븐바투타(1304-1368)는 각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의 도움으로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중국을 여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양의 사정이 서양에 알려지고, 서방의 정보가 동방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서양인이 쓴 최초의 본격적인 동방에 관한 소개서였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양쪽 사람들은 몽골제국 출현 이전에 상대방을 거의 모르고 있었다.

셋째 동서간의 학술과 과학교류도 확대되었다. 특히 대원과 홀레구 울루스의 교류가 두드러졌다. 대원의 수도 대도에는 이란과 이슬람권 학자들이 상주하고, 홀레구 울루스의 수도 타브리즈에서도 다수의 중국학자들이 활동했다. 예컨대 1271년 대도에 건설된 회회사천대(回回司天臺)에서는 이란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자말 앓딘(札馬兒丁)의 주도로 천문을 관측하고 역서(曆書)를 편찬했다. 회회사천대의 관측기기는 모두 이란에서 제작된 것이고, 도서관에는 페르시아어 서적이 갖추어져 있었다. 자말 앓딘 등 이란과 이슬람권 학자들이 소개한 서아시아의 우수한 천문학은 그 후 중국 천문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 사례가 수시력(授時曆) 편찬이다. 1276년 곽수경(郭守敬) 등은 우수한 서아시아의 관측기기와 천문학을 응용하여 새로운 역서인 수시력을 편찬했다. 이는 128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명나라 시대의 대통력(大統曆)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력은 중국 역사상 최장기인 350여 년에 걸쳐 사용되었다. 한편 홀레구 울루스에서도 나시르 앓딘 투시에 의하여 설계된 천문대가 마라가(타브리즈 남쪽의 작은 마을)에 건설되었는데, 1271년에는 중국학자들까지 참여한 천문관측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 칸 천문표’가 봉정되었다.

농학과 의학 분야의 교류도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홀레구 울루스에서 편찬된 농서(農書)는 의문이 들 정도로 중국의 농서 내용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작물의 특성과 번식에 관한 서술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는데, 이란에 도입된 대표적 품종으로 기장(粟)이 특기되고 있다. 새로운 품종은 이란에 집단 거주한 중국인들에 의하여 실험 재배

5) 몽골제국 서쪽에 있는 일 칸국, 킵차크 칸국, 차가타이 칸국.

되었다. 홀레구 울루스에는 또한 많은 중국 의사들이 활동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당시 이란에서는 중국의술 중 특히 진맥(診脈)이 인기가 있었다. 대원에서 1292년 대도와 상도에 회회 약물원(回回藥物院)을 세워 이슬람의학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1273년에는 이븐시나(980-1037)의 『의학전범』(Al-Qanun fi al-Tibb)⁶⁾이 『의경(醫經)』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제국의 규모와 인적 물적 교류는 동서간의 문화교류로 이어졌다. 제국 내 빈번한 인적 교류는 음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이란에서는 다수의 중국 요리사들이 활동하고 많은 무슬림 요리사들이 중국에 진출했다. 이들은 당연히 현지의 음식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쌀 음식과 미주(米酒)를 이란에 소개한 사람들도 동방 출신자들이었다. 특히 몽골식 양고기 수프와 치즈, 중국의 쌀가루, 만주의 잣, 서아시아의 꿀·호도·완두가 어우러진 이슬람식 퓨전요리의 존재는 몽골제국 시기 문화전파의 실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몽골제국 시기 증류주의 전파 또한 세계적 규모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이 시기 몽골인들이 중국의 증류 기술을 발전시켜 간편하고 휴대하기 쉬운 증류기를 개발하여 세계 각지에 보급했음을 입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 말 한반도에서 크게 유행한 소주가 그 대표적 사례인데, 이 소주 제조법은 군인이나 목부(牧夫)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고려에 온 몽골인들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⁷⁾

14세기 전반 중국의 징더진(景德津)에서 생산된 청화백자(靑花白磁)는 이 시기 동서간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중국의 우수한 도자기기술과 이란의 도자기 걸 그림 기법 그리고 코발트 안료가 결합되어 청화백자가 만들어졌다. 청화백자는 서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어 고가의 국제상품으로서 세계 각지로 수출되었다. 중국의 도자기 제작기술은 또한 이란에서 빼어난 도자기와 색 타일 제조를 촉진시켰다. 이 시기 이란의 세밀화 속에 중국회화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도 동서간의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활발한 동서교류는 무서운 전염병의 유행을 불러왔다. 흑사병의 발생과 서방전파다. 이 병은 원래 야생설치류에 나타나는 전염병인데 몽골제국 시대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서방으로 전해졌다. 홀레구 울루스의 마지막 칸인 아부 사이드도 1335년 흑사병으로 사망했으며, 1338-1339년 중앙아시아의 이식 쿨 호 부근의 네스토리우스파 교도들도 이 병으로 집단사망했다. 흑사병은 14세기 중엽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어 대략 2500만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때 유럽 인구의 최소한 1/3정도가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6) 라틴어 이름 아비센나로 알려진 이븐시나는 11세기 중앙아시아의 대학자임과 동시에 이슬람세계가 배출한 최고의 지식인으로 평가받고, 유럽의 의학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대 연구자에 따르면 그의 저작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총 276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의학전범』은 이슬람세계는 물론 서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의학서 역할을 했다.

7) 박현희(2016), 「燒酒의 흥기- 몽골 시기 (1206-1368) '중국'에서 한반도로 증류기술의 전파 -」, 『중앙아시아연구』 21-1.

5. 근대의 탄생과 몽골제국

지금까지 몽골제국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리 긍정적인 편이 아니었다. 영역의 광대함에 대해서는 자타가 인정하지만 전란과 정복의 시대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다. 대외원정 과정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문화재가 소실되고 약탈이 자행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몽골제국을 어떻게 평가하든 거대 제국의 역사적 역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다. 몽골제국의 출현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통합되고, 그 안에 포함된 여러 민족의 역사도 이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유라시아 세계는 몽골제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재조정된 후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몽골제국의 흥망과 성쇠는 세계사를 가르치는 분기점이었으며, 제국의 출현은 진정한 세계사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몽골인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이전 동서세계는 각각 별개로 움직여 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와 로마제국, 한나라와 당 제국, 페르시아제국, 이 모두는 후대 역사가들이 붙여준 세계제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사실상 각 지역의 맹주에 불과했다. 물론 유럽에서, 서아시아에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이들이 이룩한 업적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인, 그리스인과 로마인, 한나라와 당나라 사람들이 상정한 세계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극히 편협한 세계였다. 이러한 지역적 가름을 걷어낸 주역이 주변 사람들에게 의하여 야만인으로 폄하되었던 몽골인이다. 확실히 몽골인들은 지역적으로 한정된 골목대장이 아닌 세계를 경영한 진정한 장수였다. 이는 그 이전 제국과 몽골제국에서 편찬된 역사서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4세기 초 이란 지역의 몽골 정권인 훌레구 울루스(일 칸국)의 재상을 역임한 라시드 앳딘에 의해 『집사』라는 방대한 역사책이 집필되었다. 이 책은 제국을 통치했던 역대군주들의 과업 뿐 아니라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중국, 아랍, 투르크, 심지어 인도와 유럽, 유태인의 역사까지 망라한 세계인의 역사이다. 인류는 그때까지 이처럼 방대한 역사서를 접해 보지 못했다.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도 헤로도토스(기원전 485경-425경)의 『역사』도 기껏해야 자기 주변의 이민족의 역사를 다루었던 사실과 큰 차이가 있다. 『집사』를 세계 최초의 세계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몽골인들은 새로운 세계사의 초석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뿌린 변화의 씨앗은 몽골 시대에 이어지는 15세기부터 서서히 꽃피기 시작했다. 15세기는 서양인들이 바다로 진출하는 이른바 대항해시대가 시작된 시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양 사람들에게 의하여 촉발된 바다의 시대는 중앙아시아 위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증기기관을 장착한 선박의 수송능력은 낙타에 화물을 싣고 사막을 오가던 상행위를 거의 원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따라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으로 상징되는 대항해시대의 개막은 서구의 우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동서교역의 패턴을 일변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과장하면 세계는 그 후 내륙국가 번영의 시대에서 해상국가 패권의 시대로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구세계가 해상으로 진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는 20세기 초기까지 지속되었던 유라시아대륙 동서의 두 대국, 즉 청나라와 오스만 제국(1299-1922)이 왜 서구와 달리 바다로 진출하지 않고 내륙으로 눈을 돌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그 후 세계사의 분기를 이루었는가 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서구인들이 바다로 진출하게 된 이유는 몽골제국과 그 계승국가들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14세기 중반에서 15세기 중엽에 걸쳐 일어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새로운 무력으로 개척의 필요성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아시아 나라들(명, 청, 오스만제국)은 내륙 지향적이는데, 그 이유는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을 기회와 위협이 어디에 있었는가 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명나라의 정화(鄭和, 1371-1433)와 콜럼부스(1451?-1506) 항해는 모두 몽골시대의 유산을 상속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계승양상은 판이하게 달랐다. 그러한 차이가 당시 유럽과 중국의 항해술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었다. 학자들은 그것이 내륙과 해양을 바라보는 중국과 유럽인의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유럽인에게 해양진출은 새로운 부의 창출을 보증했고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중국(명과 청) 입장에서 보면 더 긴박한 것은 내륙으로부터 위협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이 문제, 즉 유럽이 해양 지향적이고 아시아 국가들이 내륙 지향적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몽골지배의 유무(有無)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말 우연히 몽골의 지배를 받지 않은 서유럽과 그 지배를 받은 유라시아의 내륙국가(명, 청, 오스만 제국,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바다에 대한 인식의 분기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구인이 바다로 진출하여 통상무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유라시아 전역을 거대한 통상권으로 일체화시키고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킨 몽골제국의 유산을 고스란히 상속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몽골제국의 출현은 유럽의 근대를 여는 단서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지구적 범위에서 통상과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에 와서다. 이른바 근대인데, 그 기원을 놓고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 학자들은 15세기 대항해시대 이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년 세계학계에서는 근대의 시작으로 알려진 대항해시대는 그 전대, 즉 몽골시대에 대여행의 시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동서 세계를 하나로 묶은 몽골인이 근대의 초석을 놓았다고 보고 있다.

6. 몽골제국의 황혼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몽골제국도 14세기 중엽 대원의 몰락을 전후하여 서서히 해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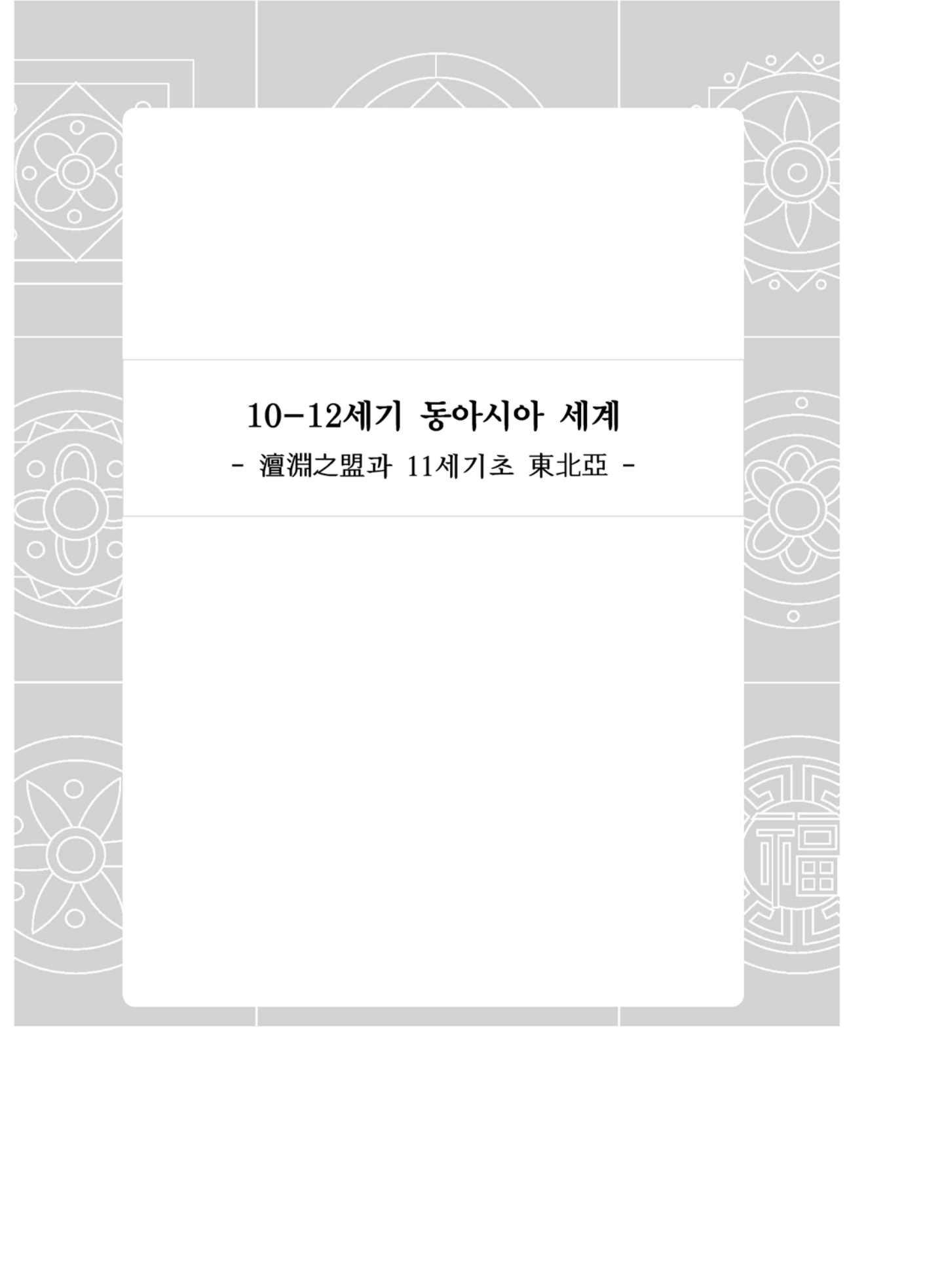
몽골제국의 종가(宗家)인 대원은 쿠빌라이의 손자 테무르가 죽은 뒤 계속된 계위계승 분쟁으로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장기에 걸친 공정의 낭비와 방탕한 재정운용은 국가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 여기에 자연재해와 역병으로 농민반란이 빈발하고 각지에서 무장 세력이 할

거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농민출신 주원장(朱元璋, 재위 1368-1398)이 1368년 난징(南京)에서 즉위하고 명나라를 창건했다. 자연재해와 내분에 시달리던 대원의 토곤 테무르(원 순제, 재위 1332-1370)는 대도를 떠나 몽골초원으로 퇴각하고, 명나라 군대에 의하여 점령된 대도는 쫓겨미로 변했다. 북방으로 퇴각한 몽골인들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군소집단으로 나뉘어 상호항쟁을 거듭하다 17세기 초기 내몽골을 시작으로 차례로 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캡차크 초원의 조치 울루스는 14세기 전반 우즈베크 칸(재위 1313-1341) 시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수도 사라이는 교역과 수공업 중심으로 번영했다. 그러나 그의 손자 베르디 백(재위 1357-1359)이 죽은 후 창업자 바투 가문의 적통이 끊기면서 조치 울루스는 20년 동안 25명 이상이 칸 위에 오르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런 혼란 속에서 토카 테무르(조치의 13남)의 7대손 토타미슈(재위 1378-1395)가 등장하여 잠시 울루스 전체를 통합했다. 그러나 그가 티무르제국의 창건자 티무르(1336-1405)의 침략을 받고 패하면서 조치 울루스는 더 이상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개의 군소정권으로 분열되었다. 한편 훌레구 울루스는 개혁신주 가잔(재위 1295-1304)과 그의 동생 올제이투(재위 1304-1316) 시기에 일시적으로 중흥을 맞이했다. 그러나 1335년 올제이투의 아들 아부 사이드(재위 1316-1335)가 사망하고 훌레구의 적통이 끊기면서 각지에서 지방정권이 자립했다.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울루스도 1340년대에 파미르고원을 중심으로 동서로 분열되는 혼란을 거듭하다 1370년 티무르에게 정권을 내주고 역사에서 사라졌다.(mongollee@naver.com)

참고문헌

- 김호동 옮김(1992), 『칭기스한』, 지식산업사
 임대희·김장구·양영우 옮김(1999), 『몽골 세계제국』, 신서원
 김호동(2002), 『동방기독교와 문서문명』, 2002
 이평래 옮김(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정영목 옮김(2005), 『칭기스 칸-잠든 유럽을 깨우다』, 사계절
 윤영인(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에서의 책봉과 맹약」, 『동양사학연구』 101
 김호동(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미야 노리코/김유영 옮김(2010), 『조선이 그린 세계 지도』, 소와당
 모리스 로사비 저/강창훈 역(2015), 『수성의 전략가 쿠빌라이칸』, 사회평론
 김호동 역주(2015) 역주, 『몽골제국 역사기행』, 사계절
 김호동(2016),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박현희(2016), 「燒酒의 흥기- 몽골 시기 (1206-1368) '중국'에서 한반도에도 증류기술의 전파 -」, 『중앙아시아연구』 21-1
 이진복 역(2016), 『칭기즈 칸 평전』, 민음사
 권기돈 역(2016), 『상상의 왕국을 찾아서』, 새물결

The background features a repeating pattern of traditional East Asian motifs, including stylized flowers, geometric shapes, and circular designs, rendered in a light gray color against a darker gray background.

10-12세기 동아시아 세계
- 澶淵之盟과 11세기초 東北亞 -

10-12세기 동아시아 세계 ‘澶淵之盟’과 11세기초 東北亞

이 장 목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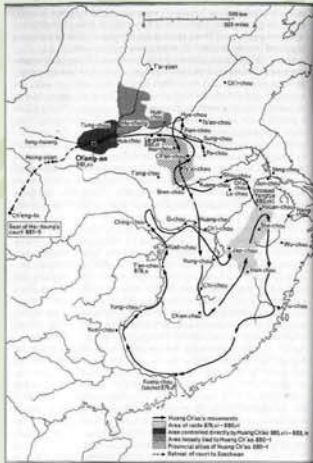
목차

- ‘澶淵之盟’과 관련 사료, 연구
- 唐의 멸망과 五代十國의 중국
- 北宋의 건립과 통일전쟁
-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 요의 등장
- 高麗와 遼宋관계
- 遼의 고립과 宋, 高麗와의 전쟁
- ‘澶淵之盟’ 전개과정
- 11세기 동북아의 ‘澶淵之盟’과 오늘날 한반도

‘澶淵之盟’ 과 관련 사료, 연구

- 역사상 ‘澶淵之盟’이란? 澶州 (澶淵의 아명, 河南清豐縣)
- 正史, 編年體, 筆記, 文集, 墓誌銘 등 考古資料
- 예) 新舊五代史, 宋史, 遼史, 高麗史, 高麗史節要, 資治通鑑, 續資治通鑑長編, 東都史略 등
- 韓中日 3국 및 歐美 지역 주요 저작 및 논문
- 예) 周寶珠 등, 簡明宋史 (1985); 方豪, 宋史 (1988)
-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5 Part 1 (2009), Volume 5 Part 2 (2015)와 Volume 6 (1994)
- David Curtis Wright, *From war to diplomatic parity in eleventh-century China* (Brill, 2005)

황소의 반란 (874-84)



- 황소: 과거시험의 실패자로 소금 밀매자로 변신.
- 산둥과 광동을 점령 (880), 낙양, 그리고 나서 장안을 함락 (881). 당조에 의해 긴급히 수입된 터키계 용병들에 의해 패배.
- 계급 적대성:
 - 일반인들이 사대부나 관료가문들에 대항.
 - 지주, 소작농, 농민 그리고 노예들이 국가에 대항.
 - 관료와 일반인들간의 중간계급의 역할.

五代十國時代 (970-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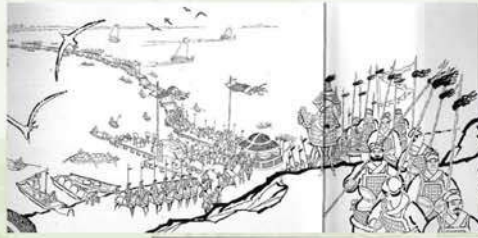
- 당의 멸망 - 한의 경우와 같이 주전충이라는 장군에 의해 찬탈 당함. 주전충은 후량을 건국.
- 오대왕조. 북방과 남방 중국 차이를 구분 필요
 - 5개 왕조가 연속적으로 건국, 대부분 쿠데타로 교체.
 - 절도사 통제 성공 - 대부분 황제의 직속 금군의 강화로 인하여.
 - 문제 - 금군 통제가 새로운 관건으로 대두.
- 남방의 십국. 북방과 비교하여 안정적이었으나 여러 나라로 분열.
 - 번영 - 늘어나는 인구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송대 宋代(960-1279)

- 북송 (960-1125) & 남송 (1126-1279).
- 송조의 건국자: 조광윤 趙匡胤 (927-76) 또는 송태조 太祖 (r. 960-976).
 - 오대 마지막 후주왕조의 금군 장군이며 후주 后周의 섭정.
 - 쿠데타를 통해 정권장악.



송의 통일



- 남방 십국 정벌 - 979년까지 전 남중국 통일
- 그러나 북방에서는 요 쥬 (978-1004) 와의 전쟁에서 실패, 북방의 산서와 하북 통일 실패
 - 燕雲16州와 遼의 南進 (947)
 - 高梁河戰 (979)과 雍熙北伐 (986)



새로운 동아시아 세계 요=거란 (907-1125)

- 거란 민족:
반농경과 유목민으로 만주에 기원.
- 문화적 수양.
- 남부(중국 북방 하북과 산서성)은 중국인 중심의 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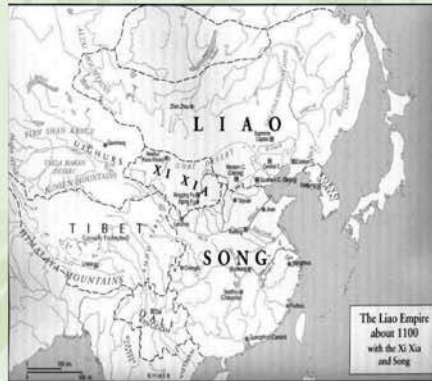
요의 역사



- 아보기 (재위 907-26) 에 의해 건국과 통일
- 947 - 잠시 중국 북방 정벌.
- 중국식 왕조 건립 (“요”) & 제국 관제.
 - 중국과 유목민의 양면성 관제
- 978-1004 - 송, 고려와의 전쟁

唐朝의 멸망과 11세기 동아시아

- 遼(契丹) 907-1125
- 北宋 960-1126
- 高麗 918-1392
- 平安(헤이안) 794-1185
- 女眞
- 西夏 982-1227
- 甘肅 티베트 등
- 越南 李王朝 1009-1225
- 大理 937-1253



- 서하 (990-1227)
 - 황하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날 신강, 감숙, 칭해성 지배. 오아시스 경제. 문화적.
 - 전략적 위치.
 - 처음엔 송에 조공 그러나 1038년 독립 선언. 송과의 전쟁(1040-1044).
- 한국 — 고려왕조 (918-1392)
- 일본 — 헤이안 시대 (794-1160)와 막부시대
- 베트남 - 대월 (1010-1527)
- 모두 강력한 국가들로서 중국을 모델로 국가 건립

高麗와 遼宋관계

- 王建의 高麗 건국 (918) 과 後三國 통일 (936)
- 麗宋국교수립과 문화교류
 - 高麗 光宗 사신 파견 (962)
 - 962-1031 28차례 사신왕래
 - 경제, 문화 등 해상 루트를 이용한 다양한 교류
- 高麗의 북방정책과 渤海의 멸망 (926)
- 高麗와 契丹 전쟁 (993-1019)
 - 和議 달성 (1019)과 宋과의 국교 단절 (1031)



遼의고립과 宋, 高麗와의전쟁

- 契丹은 만주와 몽고 지역에 거주하던 유목민족
- 唐朝의 멸망으로 중국 북방에 遼왕조 건국 (907)
- 渤海 정벌 (926)
- 五代 後晉으로부터 燕雲16州 획득 (936)과 북중국 침공 (946)
- 帝位 계승 쟁탈 기간 (947-982)
- 聖宗의 즉위 (982)와 공세적 군사, 외교정책
- 遼宋전쟁 (979, 986)
- 高麗와 契丹전쟁 (993-1019)
- 契丹의 宋, 高麗와 화의



‘澶淵之盟’ 전개과정

- 遼의 고립과 정치, 군사, 외교적 공세
- 高麗와 契丹 1차 전쟁 (993)
- 遼의 宋에 대한 침공 (999-1005)와 ‘澶淵之盟’
 - 遼의 宋에 대한 대공세
 - ‘澶淵之盟’ (1005)
- 高麗-遼 화의 달성 (1019)

**Song bride delivered to the Khit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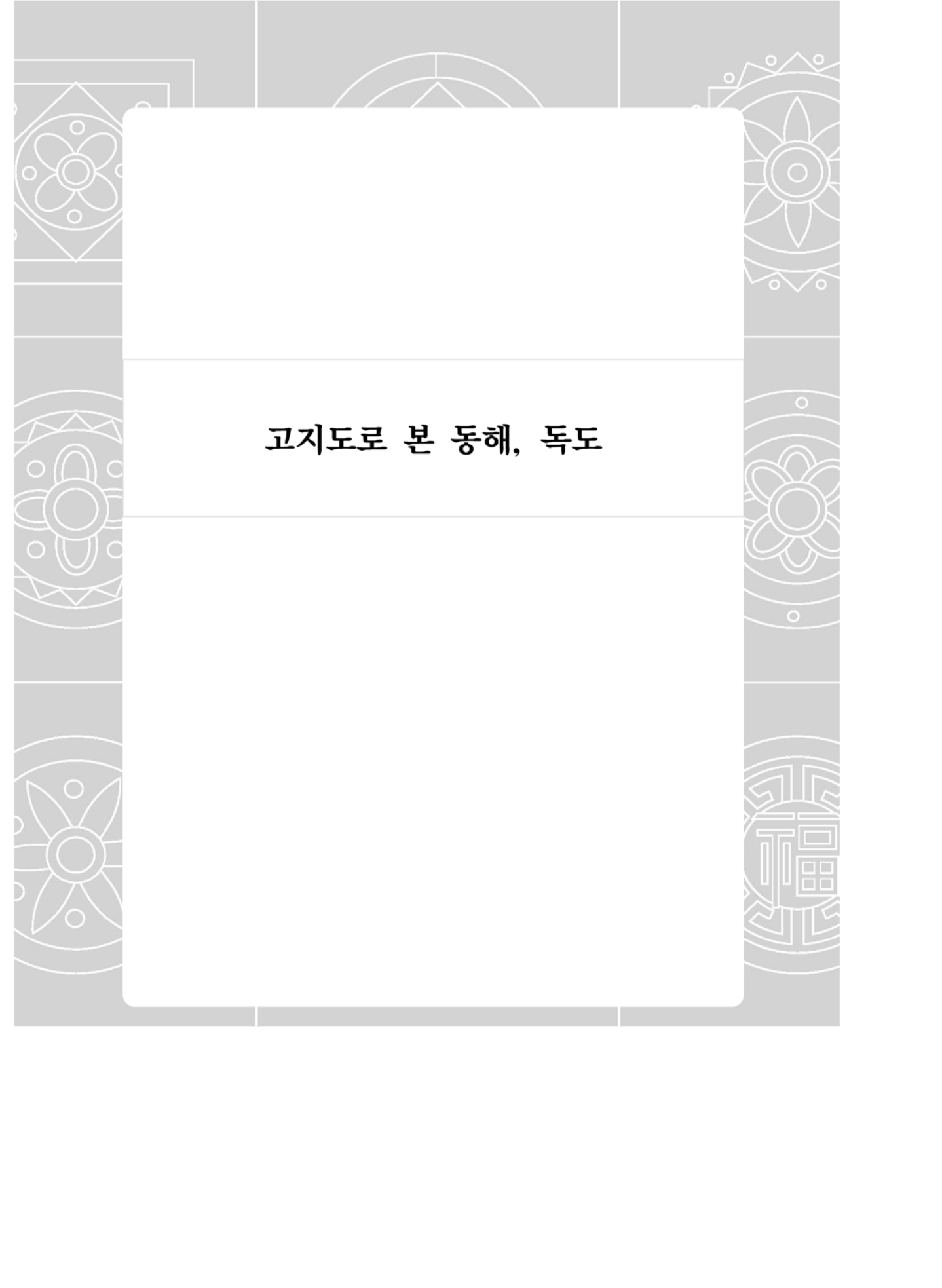
‘瀋淵之盟’과 11세기 東北亞

- 10-11세기 東北亞 질서 재편
 - Multi-State Empires와 Balance of Power
 - 중국포위
 - 100년의 평화 기반 구축
- 契丹의 고립탈피 및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승리
 - 遼(契丹) 중심의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
 - 遼宋 형제국의 관계 수립
 - 高麗와 宋의 遼에 대한 朝貢



오늘날 주변 4대 강국과 한반도

- 美中 패권 경쟁 사이의 한반도
 - 20-21세기 동맹국 미국
 - 전통의 동아시아 패자 중국
 - 南北韓과 통일문제
 - 공동번영 아니면 제2의 'Cold War'?
- 韓國과 日本의 관계
 - 과거사 문제
 - 공존 or 대결
- 한반도와 러시아의 관계

The im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traditional Korean patterns. The background is divided into a grid of squares. The top-left square contains a diamond-shaped floral motif. The top-right square contains a circular floral motif. The middle-left square contains a circular floral motif. The middle-right square contains a circular floral motif. The bottom-left square contains a circular floral motif. The bottom-right square contains a circular floral motif. A large white rectangular box is centered on the page, containing the text "고지도로 본 동해, 독도".

고지도로 본 동해, 독도

고지도로 본 동해, 독도

김 종 근
(동북아역사재단)

지도란 무엇인가?

- 지도의 정의
 - 지구 표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추상적이고 간소화시켜 표시한 것
 - 지표상의 일부를 마치 공중을 나는 새의 눈으로 보는 조감도와 같은 관점을 제공
 - 지도를 통해 장소와 사물들의 위치를 파악

지도와 국가정체성

- 국가정체성 : 역사와 지리를 바탕으로 국민을 결속시킴
 - 역사서, 지도, 지리지 등을 편찬하는 것은 국민의 국가정체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경영 전략의 일환
- 지도는 점, 선, 면의 요소를 지닌 이미지로 된 지리지

- 지도에 표현된 것은 실재 존재하는 모습?
 - 지도는 일정 비율로 축소하여 그린 현실 세계의 모방
 - 제작자의 인식 속에 각인된 공간의 표상
 - 현실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정보를 전달하는데 탁월함

- 국가정체성 형성에 있어 지도의 역할
 - 지도에 표현된 국경선과 지명은 국민이 자아정체성을 확인
 - 대내외적으로 국가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도구
 - 국가는 지도를 통해 국토를 구체화 함

- 국가의 경영과 지도
 - 지도위에 국경선을 긋는 것은 인접 국가와의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정치적인 행위
 - 탐험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선점의 원칙에 따라 지도위에 표시
 - 지도는 단순한 국토의 표현을 넘어서서 국가 관리의 기초가 됨
 - 지명은 국가에서 관리
 - 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국가의 영토범위를 표현하는 수단

지도 = 공간의 표상

- 지도는 지리정보의 생산자와 수요자간을 매개
 - 즉 지리정보 소통의 도구
- 지리지식의 습득 도구
- 새로운 인지 지도를 형성시켜 공간의 표상에 영향을 준다

고지도란 무엇인가?

- 20세기 이전의 지도
 - 한국의 경우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도
- 의미
 - 역사의 기록(동해, 독도 등)
 - 예술 작품
 - 지도를 만든 당시 인간들의 신념과 가치체계, 주변 세계에 대한 꿈과 희망이 담긴 것

우리나라 지도의 발달과 국토

- 삼국시대 부터 시작된 지도제작
 - “고구려의 영류왕 11년(628년) 견당사를 통해 당나라에 고구려의 지도를 보냈다”(삼국사기)
 - 백제: 삼국유사의 ‘남부여조’에 기록
 - 신라: “신라와 백제간의 경계를 지도에 의해 살펴보았다”(삼국사기 문무왕조(671년))
 - 현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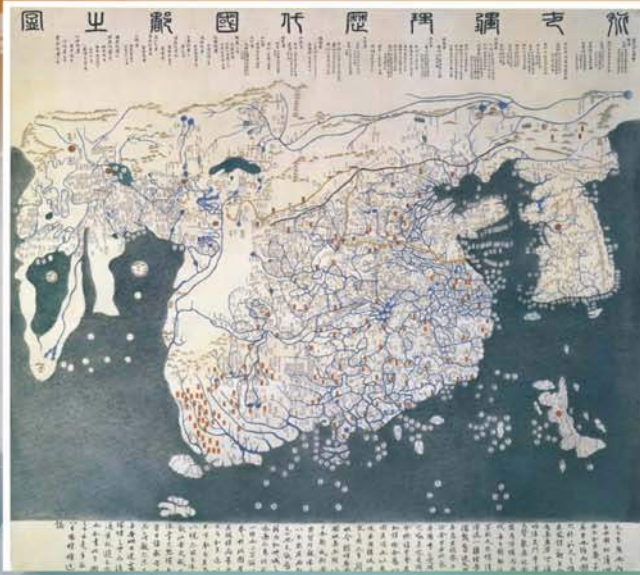
훈일강리역대국도지도(1402년)

- 우리나라에서 그려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
- 의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지도
- 김사형, 이무 등이 몽골제국의 지도(성교광피도, 훈일강리도)를 참조하여 제작
- 일본 류코쿠대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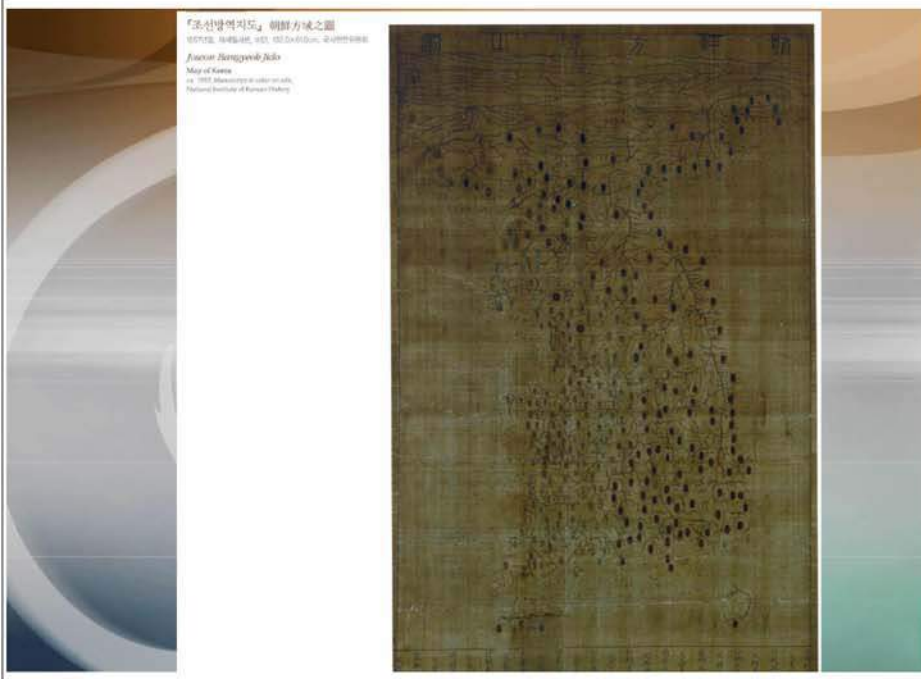


모사본

- 서쪽에는 아라비아 반도 유럽, 아프리카 등이 그려짐



- 동국지도
 - 정척, 양성지 제작(1463년, 세조9년)
 - 현존 없음
 - 이 지도의 계통인 '조선방역지도'는 현존(국편)
- 조선방역지도
 - 현존하는 조선전기 대표지도
 - 1557년 제작
 - 만주와 대마도 표기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내 팔도총도



17세기 지도제작

- 민간제작자
 - 김수홍 (1601~1681): 명문가 출신, 조선팔도 고금총람도, 천하고금대총편람도 제작
 - 윤두서 (1668~1715): 윤선도의 증손자, 성호 이익과 깊은 친분, 동국여지지도, 일본 여도 제작

조선팔도 고금 총람도

- 김수홍 제작(1673)
- 각 고을의 역사적 내용을 수록



천하고금대총 편람도

- 김수홍 제작
- 조선팔도 고금총람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 지도를 그림



윤두서



17세기 세계지도의 도입

- 중국에 진출한 서양의 선교사들이 제작
- 곤여만국전도(1602년)
 - 마테오리치
- 만국전도(1623년)
 - 알레니(1582~1649)가 저술한 '직방외기'에 수록
- 곤여도설(1672년), 곤여전도(양반구도)
 - 페르비스트(1623~1688)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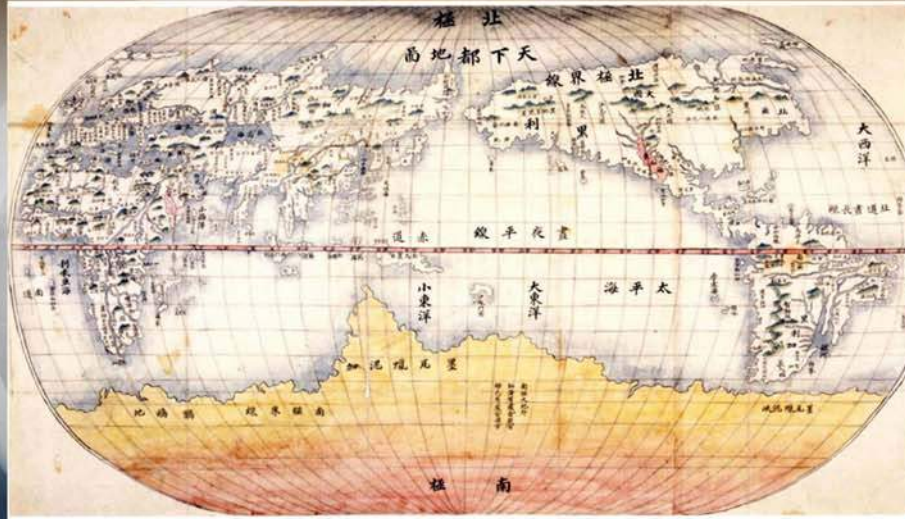
곤여만국전도



곤여전도 - 페르비스트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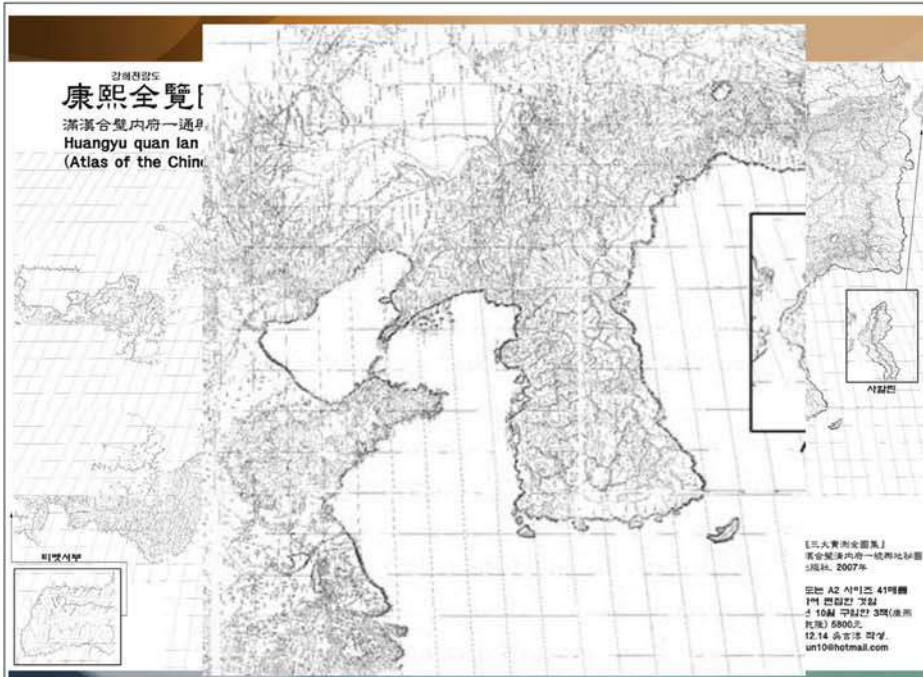
천하도지도(18세기말) - 알레니의 만국전도 필사본





황여전람도

- 청나라 강희제의 명령으로 프랑스 선교사 제르비용 페레이라가 제작
- 1717년 측량 사업 완성
- 1737년 프랑스 지도학자 당빌이 이 지도를 번역, 이후 유럽에 동아시아 지리정보 확산
- 경위선 사용



중국 중심주의 사상(천하도)



천하도
(18세기 말)



18세기 이후 지도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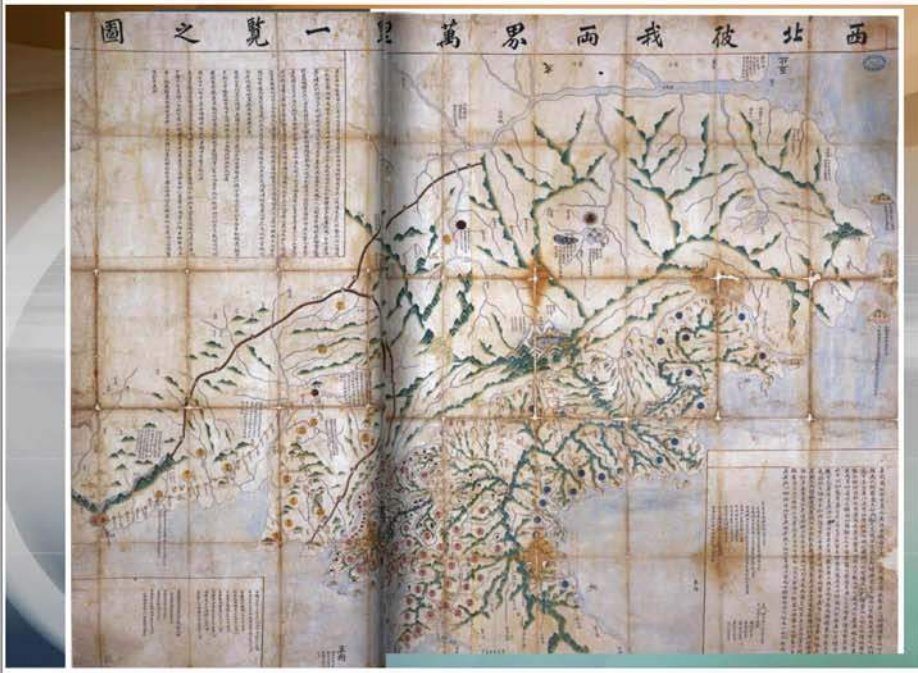
- 조선후기 상업 경제의 발달로 지도 수요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지도가 제작 보급됨
 - 휴대에 편리한 수진본 지도책의 보급
 - 조선전기에는 조선전도와 도별도만 제작되다가 후기로 갈 수록 천하도, 중국지도, 일본지도, 류큐국(오키나와) 등이 제작됨



- 정상기
 - 동국지도: 백리척을 사용한 지도
 - 19세기 해좌전도에 영향을 미침
 - 정인지의 후손, 이익의 문인, 향촌에 은거
 - 후손인 정철조, 정후조 형제는 이후 정상기의 지도를 수정 편집해 '해주본 동국지도' 제작

정상기의 동국지도

- 축척을 처음으로 사용한 지도
- 약 40만분의 1 축척



조선후기 군현지도

- 고을 단위로 지도를 제작
- 비변사와 홍문관 주도로 제작
- 홍문관 제작 대표지도는 ‘해동지도’
- 홍문관에서 제작한 지리지인 ‘여지도서’의 전단계

해동지도의 구성

- 전국도(한반도)
- 국경부근(서북피아양계전도)
- 도별도
- 군현도

전국도
(대동총도)



도별도(경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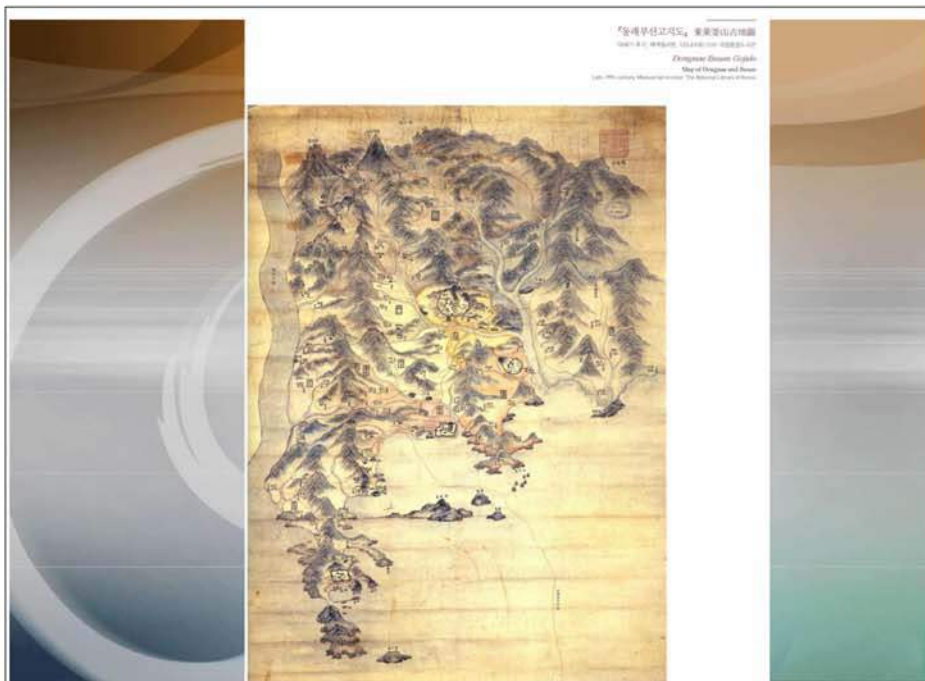
군현지도 (동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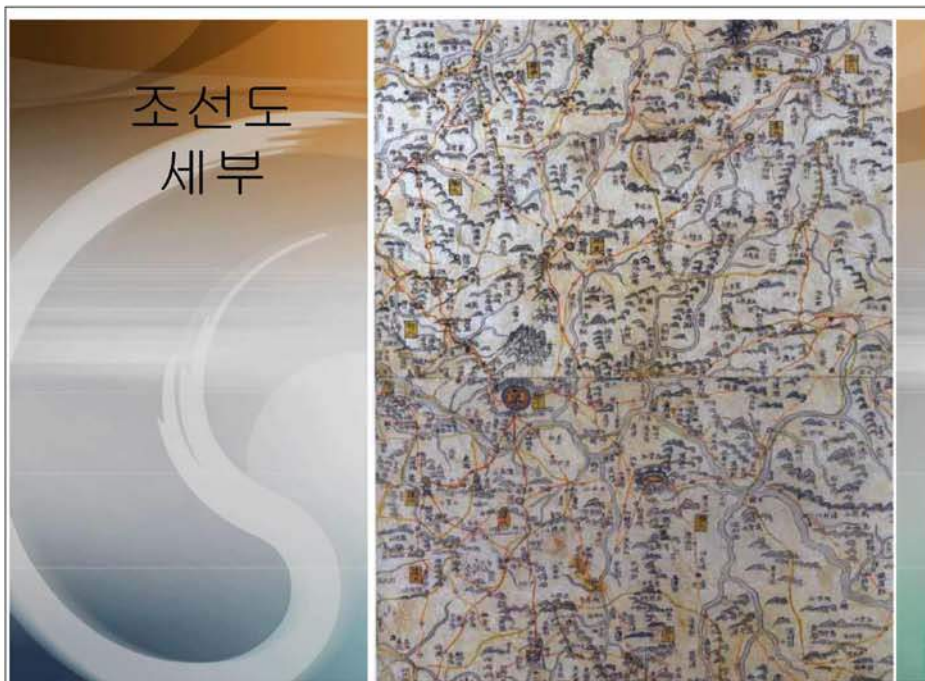




19세기의 군현지도

- 군현마다 방위, 축척, 지리 정보 표현법이 모두 다른 지도
- 대표적인 것이 1872년 제작된 지방 군현 지도
- 흥선대원군이 병인, 신미 양요 겪은 후 대응책으로 읍지편찬 및 지도제작 지시를 통해 만들어진 지도
-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대축척지도이므로 지리정보가 매우 풍부함





동여 세부도



김정호

- 중인계급
- 청구도(1834), 동여도(1857), 대동여지도(1861) 제작
- 호는 고산자

대동여지도

- 고산자 김정호 제작
- 전국을 남북 22첩으로 나누어 제작
- 이어 붙이면 세로6.7m 가로 4m의 대형지도가 됨
- 약 11,600여개의 지명 존재
- 산줄기는 전통적인 산맥체계에 근거하여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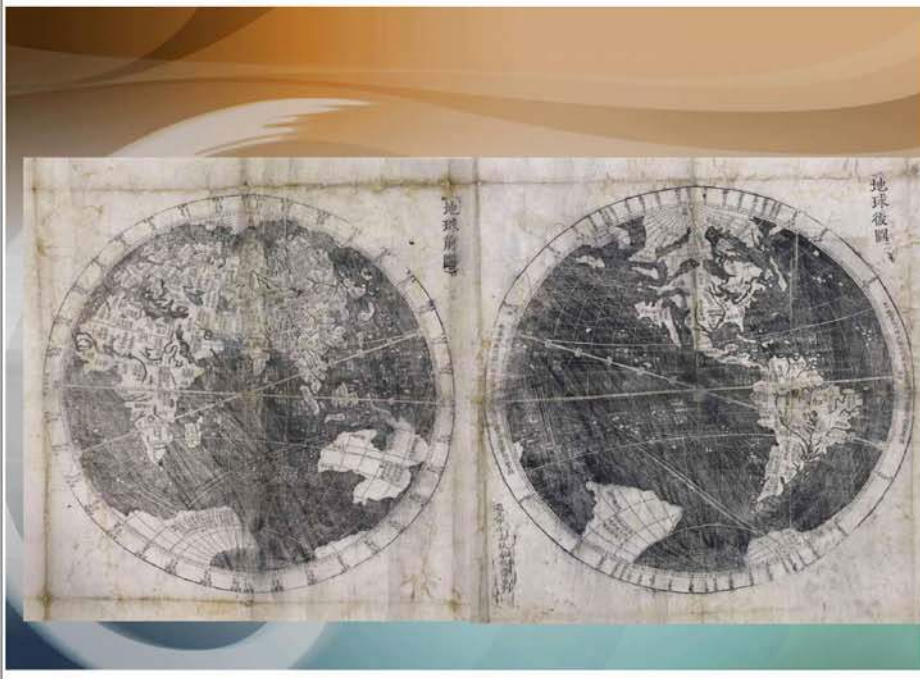




19세기의 다양한 지도들

- 지구전후도
 - 최한기가 목판으로 제작
 - 중국의 '지구도'를 보고 만든것
- 해좌전도
 -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수정한 내용 포함
 - 여백에 단군조선에서 고려시대까지의 행정구역과 울릉도, 대마도, 제주도 등에 대한 역사 및 지리 정보가 수록됨
- 대동여지전도
 - 대동여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지도

- 최한기(1803~1877)
 - 개화사상가
 - 중국서적을 다수 소유
 - 천문 지리에 관심
 - 김정호와 교류
 - 중국의 지구전후도를 목판에 새김



해좌전도



대동여지전도



- 수선전도
- 한성부지도
 -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 영국 지리학 잡지에 소개한 지도
- 대한전도
 - 개화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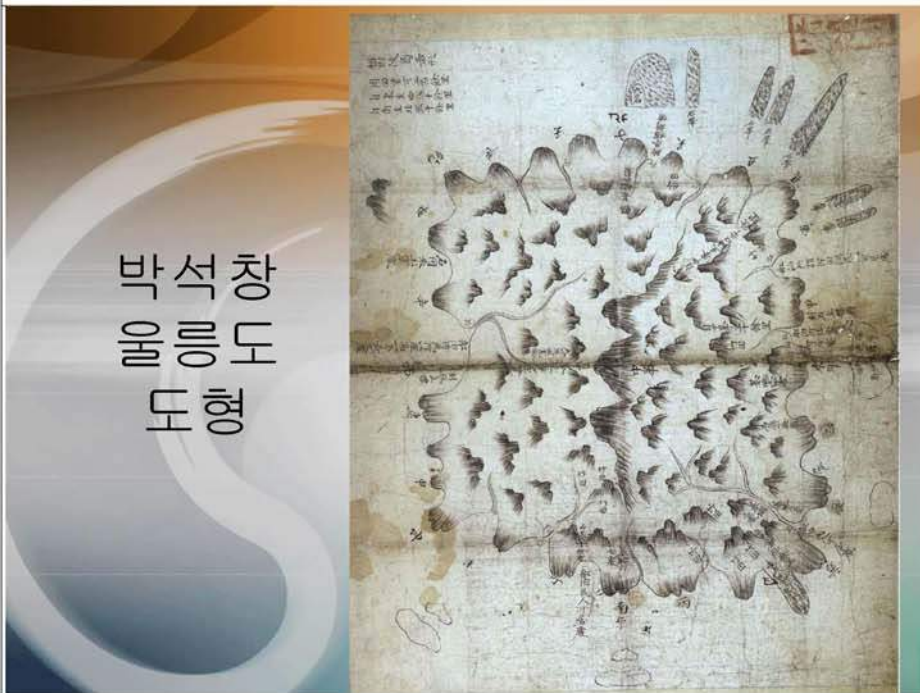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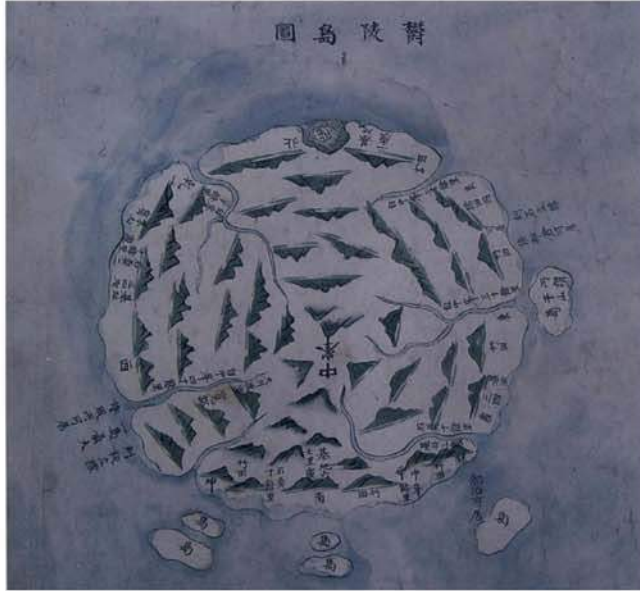
울릉도, 독도 지도

- 15세기 이래 울릉도, 독도는 주민쇄환정책으로 거주가 금지
- 1693년 안용복 사건 이후 울릉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재확인
- 1694년 장한상이 울릉도 조사 후 '울릉도 지도' 만들어 숙종에게 올림(현존하지 않음)
- 1711 박석창이 울릉도 수도 후 지도를 그려서 조정에 바침(규장각 소장 울릉도 도형)





『어지도』 『울릉도도』 兩地圖 鬱陵島圖 Ullung in Yeojido
 1726~1776년, 海峽領事館, 30.3×28.5cm, 국립중앙도서관
 1726-1776, Manuscript in col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도판 16-5

『해동여지도』 울릉도·우산도 海東輿地圖 鬱陵島·于山島 Ullungdo and Usando in *Haedong Yeojido*
 1776~1790년, 海峽領事館, 34.1×27.2cm, 국립중앙도서관
 1776-1795, Manuscript in colo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도판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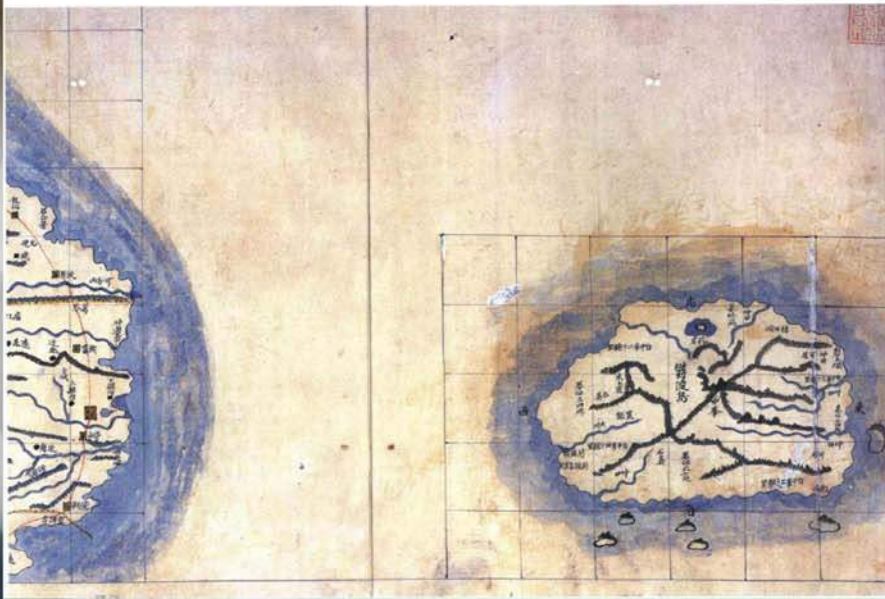
『조선도』 울릉도·우산도 朝鮮圖 鬱陵島·于山島 Ulleungdo and Usando in Joseon Do

19세기 전기, 채색본사본, 직 21.9×25.0cm(8.6인치), 일본 오사카 무넨도서관
 Early 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Library of Osaka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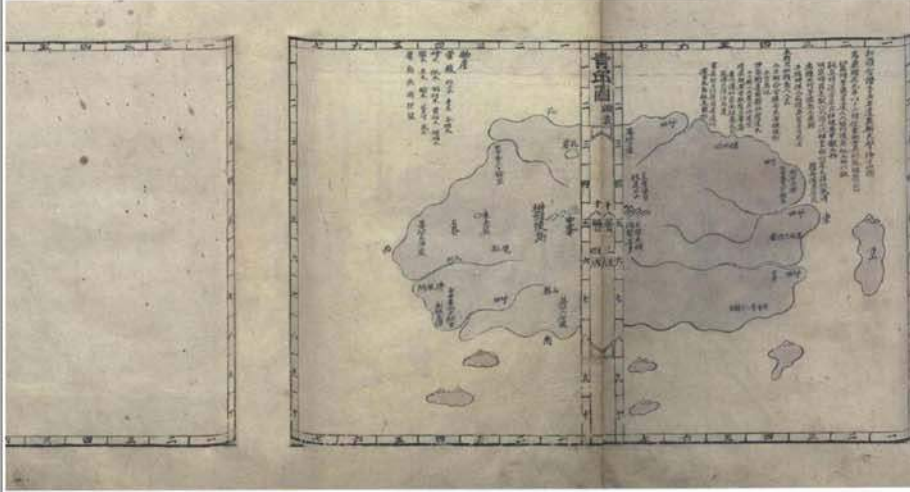
『동여』 울릉도·우산도 東輿 鬱陵島·于山島 Ulleungdo and Usando in Dong Yeo

19세기 후기, 채색본사본, 직 41.2×26.8cm(16.2인치), 국립중앙박물관
 Mid-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National Museum of Korea



『청구도』 울릉도·우산도 靑邱圖 鬱陵島·于山島 Ulleungdo and Usando in *Cheonggu Do*

1834년, 김정호(金正浩), 제작일시불, 각 31.5×21.5cm(2매), 고려대학교 도서관
TKA, Kim Jeongho, Manuscript in color, Korea University Library



『청구도』 울릉도·우산도 靑邱圖 鬱陵島·于山島 Ulleungdo and Usando in *Cheonggu Do*

1834년, 김정호(金正浩), 제작일시불, 각 31.5×21.5cm(2매), 국립중앙도서관
1834, Kim Jeongho, Manuscript in color, Kyjongsangak



『동여도』 울릉도·우산도 東輿圖 鬱陵島·于山島 Ulleungdo and Usando in *Dong Yeodo*

최석필서본, 각 27.5×14.9cm(1尺10寸), 일본 쓰쿠바대학 도서관
 Manuscript in color, Library of Tsukuba University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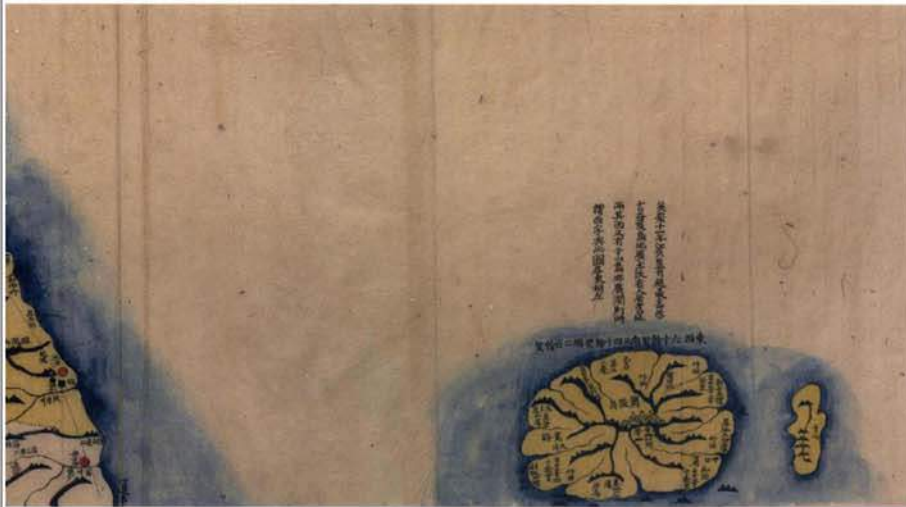
『대동여지도』 울릉도 大東輿地圖 鬱陵島 Ulleungdo in *Daedong Yeojido*

190년, 김정호(金正浩), 기채묘반본, 각 30.6×20.3cm(22寸), 숭실여자대학교 박물관
 1845, Kim Jeongho, Woodblock Print in col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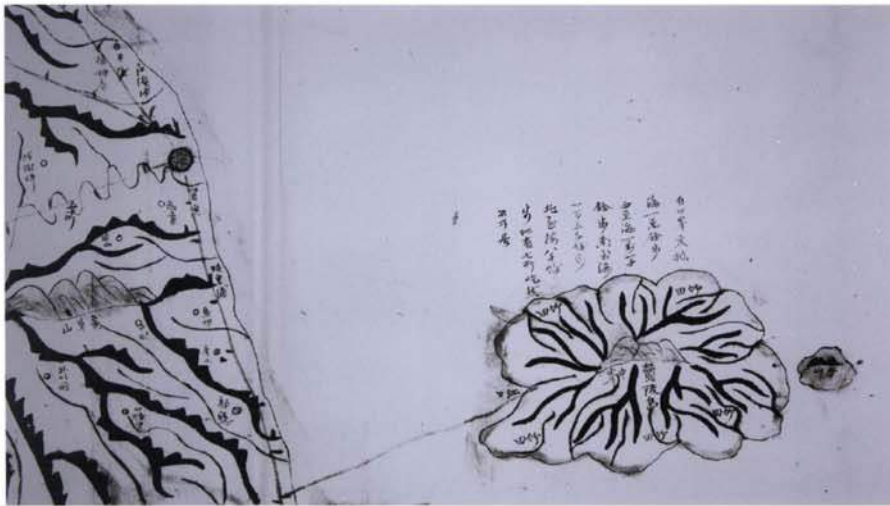
『대동여지도』(수정본) 울릉도·우산도 大東輿地圖(修正本) 鬱陵島·于山島
 Ulleungdo and Usando in *Daedong Yeojido(revised edition)*

19세기 후기, 채색필사본, 각 30.5×20.1cm(22장), 한국연구재단
 Late-19th century, Manuscript in color,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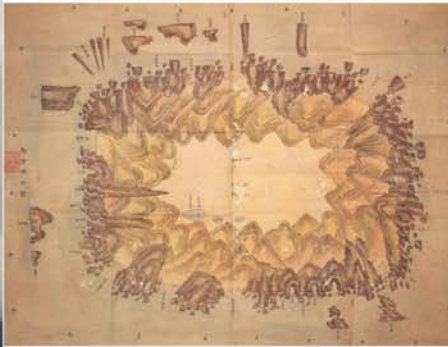
『대동여지도』(수정본) 울릉도·우산도 大東輿地圖(修正本) 鬱陵島·于山島 Ulleungdo and Usando in *Daedong Yeojido(revised edition)*

19세기 후기, 필사본, 48.4×64.2cm, 영국 British 도서관영인, 국립중앙도서관
 Late-19th century, Manuscript, British Library/photocop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규원의 수토(1882)

- 울릉도 검찰일기
- 울릉도내도, 울릉도외도



'울릉도 외도'



'울릉도 내도'

서양 고지도 속의 동해표기

- 중국해, 만주해, 동양해, 동해, 한국해, 일본해, 타타르 해 등으로 표기
-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해 표기 증가
-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 발간 “해양과 바다의 경계”에 “일본해”가 사용된 이후 확산
- 1991년 유엔가입이후 East Sea/Sea of Japan의 병기 노력 중

17세기 한반도 및 인근지역



동쪽바다



한국해



한국해/ 일본해 병기



24
일본왕국도
1780년, 1750년, 1750년, 69x12.0cm, 8.400P5A481 3.3
L'Empire du Japon
France, Goussier, 1780, 69x12.0cm, 8.400P5A481 3.3

동양해



일본해: 1851년, 영국, 케르넷

